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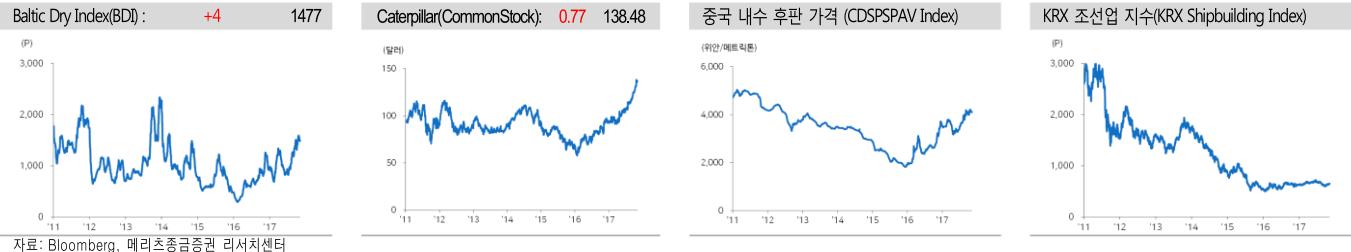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924.8	20.8	157,500	-1.3	8.6	-10.5	13.8	56.7	128.2	0.8	0.8	1.3	0.6
현대로보티스	6,995.1	20.3	429,500	-0.6	0.8	-11.6	N/A	4.7	5.3	0.9	0.8	19.4	15.8
현대미포조선	939.9	5.8	236,000	0.4	2.6	-26.9	N/A	11.6	7.8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436.1	10.3	355,500	-0.8	-3.5	-8.4	N/A	11.2	8.6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758.0	18.6	12,200	1.7	8.9	6.1	31.9	61.9	132.0	0.8	0.7	1.2	0.6
대우조선해양	1,890.5	2.8	18,000	5.9	N/A	N/A	-59.8	1.1	11.7	0.5	0.5	64.1	4.3
한진중공업	2,180.0	14.1	109,000	-1.8	15.8	-22	62.2	10.7	37.0	0.9	0.9	8.9	2.4
한진중공업	387.1	4.1	3,650	0.1	-3.9	-17.6	8.5	-11.4	8.2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62.2	31.1	55,300	0.2	10.7	7.4	-37	10.3	9.8	1.5	1.3	15.9	14.6
두산밥캣	3,604.0	24.6	35,950	-1.4	-1.6	-22	0.3	15.8	14.5	1.0	0.9	6.6	6.7
현대로템	1,661.8	28.3	19,550	1.6	10.5	6.3	7.7	37.1	25.0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40.3	47.5	25,000	1.2	18.5	7.1	18.5	13.1	11.5	1.1	1.0	8.5	9.0
성광밴드	284.6	14.7	9,950	0.4	6.5	1.6	12.3	32.2	18.5	0.6	0.6	1.9	3.2
태광	266.3	16.7	10,050	0.0	8.2	2.9	21.2	37.6	20.7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809.8	8.9	17,000	-1.4	-0.6	-8.6	-37.5	-978.8	9.3	0.6	0.6	0.1	6.1
두산인프라코어	2,000.3	11.3	9,640	2.1	17.4	12.2	9.3	10.0	8.5	1.0	0.8	9.6	10.4
두산엔진	312.4	5.1	4,495	3.9	12.7	6.4	36.8	31.0	29.9	0.6	0.6	1.9	1.9
한국항공우주산업	5,478.1	20.3	56,200	-1.2	28.6	44.1	-16.1	50.1	22.8	3.7	3.3	7.3	14.9
한화테크윈	2,111.9	21.4	40,150	2.7	20.9	6.6	-7.6	28.2	19.5	0.9	0.9	3.2	4.5
LIG넥스원	1,592.8	19.9	72,400	0.4	-0.5	-9.3	-10.1	16.2	15.0	2.2	2.0	15.6	14.2
태웅	386.1	2.2	19,300	0.8	15.9	-12.1	-14.0	49.9	17.1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3.7	3.5	4,955	0.6	-0.6	-18.8	-13.8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61.1	16.6	5,940	0.0	1.7	-3.3	-1.8	19.9	26.9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MA CGM takes LNG fuelling plunge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CMA CGM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2.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신조선에서 Dual-Fuel 옵션을 채택했다고 알려짐. CMA CGM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정을 발표했고, 이로써 LNG연료를 사용하는 최초의 대형 컨테이너선사가 될 예정임. 회사 관계자는 LNG를 연료로 선택함으로서 기존에 비해 선박 에너지 효율이 높고, LNG를 사용하면 CO2 배출량은 최대 25%, 황은 99%, 질소산화물은 85%까지 각각 절감 가능하다고 언급함. CMA CGM은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2015년과 2025년 사이에 CO2 배출량을 약 30% 더 줄일 계획으로 알려짐. (TradeWinds)

Johan Castberg award 'rethink'

Statoil의 Johan Castberg FPSO Hull과 LQ 건조계약 체결을 11월 1일에 발표한 계획이었으나, 지연되면서 우려가 발생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미팅을 많이 가졌지만 품질관리를 위해 결정이 지연된다고 알려짐. Statoil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번 가을에 Hull과 LQ에 대한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말까지 최종투자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Maersk drops full-year forecast after weak third quarter

AP Moller-Maersk의 3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낮으면서, 올해 핵심사업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춤. 가이던스 하락은 사이버 공격이 그룹사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준 점에서 근거함. Maersk Tankers와 Maersk Oil 매각은 전전을 보였으나, Maersk Line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함. (TradeWinds)

DGB금융, 하이투자증권 최종 인수 전망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앞두고 가격, 인수구조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DGB금융은 8일 이사회에서 인수를 확정하고, 9일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자회사 하이타산운용, 현대선물 등을 포함해 총 인수가격은 4,500억원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머니투데이)

2018 탱커 시장 희망 있다

납기와 지연되는 신조 탱커가 많다는 점에서 2018년 수급 편차면밀이 견전하며, 단기 공급에서 Suezmax급 탱커 전망이 밝다고 알려짐. 올해 OPEC 감산과 신조선의 꾸준한 수입으로 운임이 약세를 보였으나, 인도예정 선박 일부의 납기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성이 높아, 수급 균형과 운임이 상승할 전망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7년 1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이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